



연락하실 곳 510-1924
 메일 alicekhj@freechal.com
ddosily@freechal.com

수기 & 감상문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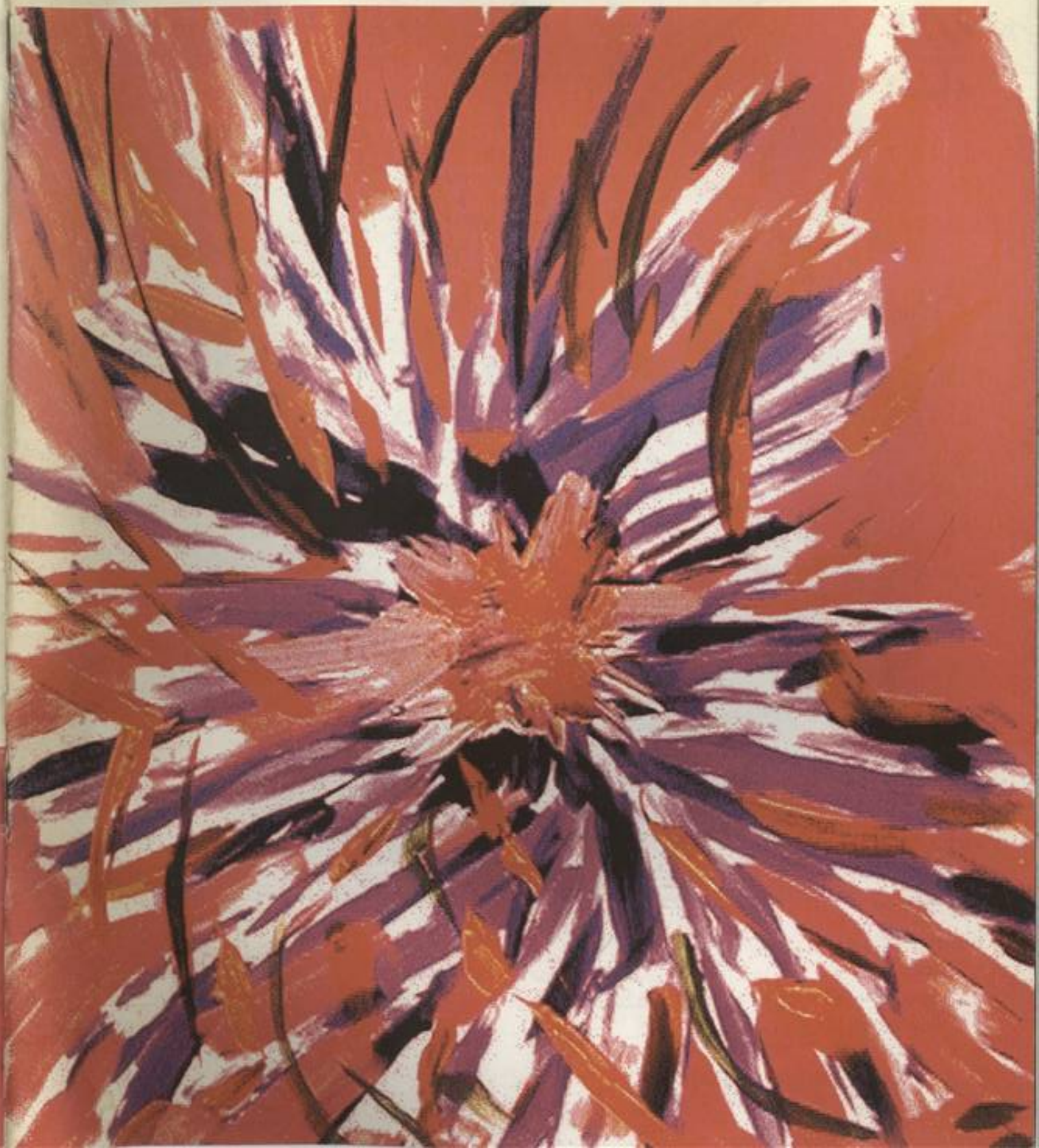
여성잡지 **헬스토리**에서 독자 여러분의 수기와 감상문을 모집합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8월31일까지

모집기간은 8월31일까지
 보내실 곳은 alicekhj@freechal.com입니다

다음호 수기 주제는 **도서관에서 생긴 일**입니다.
 감상문의 추천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리아스타이넘,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일상의 반란>, 현실문화연구 오한숙희, <아줌마 밥먹구가> 오한숙희의
 자연주의 여성학, 여성신문사 달과 입술,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동녘 앨리스 워커, <은밀한 기쁨을 간직하며>



여자의 窓



사진/글 엘리 ddoxly@freemal.com

완월동에 가면 있습니다. "국가 지정 성병 검진소"

매춘여성들은 여기에서 매일매일 성병의 위험이 있다는 허가증을 받고 영업을 해야합니다.
국가가 매춘여성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참고로 한국은 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부산대여학생잡지 HerStory

VOL 1 창간호 2002.05.20

Contents

[여자의 창]

[특별기획성매매] 누구를 위한 성매매인가?

[interview]

[2002 특별주제] 내생애 가장 특별한 한주
몸과 성을 말한다

[대천여자들의 대답한 이야기]

[건강+학]

[독자수기] 남자들은 모른다

[독자REVIEW]

2 완월동에 가면 있습니다 "국가 지정 성병검진소"

4 성매매, 멀고도 가까운 우리들의 이야기

5 성매매는 필요악이 아닌, 21세기판 노예제도

6 이렇게 유지되는 성매매, 바꿀 방법 여기 있습니다.

7 성매매 근절의 움직임, 부산에서도

8 반성폭력 학칙개정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0 땀아름이 우리 나이 적엔? 노혜경을 만나다

12 팔딱거리는 왼쪽 심장을 가진 유선경을 만나다

13 여성주의기행동아리 마실을 만나다

14 특별주제 일정표

15 <홍석천과 하리수 사이>와 <남과 여, 상대방의 몸과 마음 공략법>

16 콘돔, safe sex, happy sex

17 콘돔이 뭐길래

18 미술전시 - Open your Sex 행복은 성적인 순이 아니잖아요

19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공동체 작품 - About Sex...

20 그녀는 왜 졸업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23 발지압법

24 '변태와 생리통'에 관한 네가지 이야기

26 <페니스 파시즘>을 읽고

28 현경, <미래에서 온 편지>를 읽고

29 안혜경, 여성으로 노래하라!

30 서울여성영화제 가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다



표지그림 - 'about SEX'

특별주제 '몸과 성을 말한다'를 위해 학우들이 만든 '공동작품'. 각자 학우들이 '성'이란 주제로 타일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학우여러분의 예술적 상상력이란, 상상 이상이다군요. 하나하나 그려 채워갈수록 더욱 뜻깊어지고 '예술'이 되어갔습니다. 한꺼번에 봐도, 하나하나 봐도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표지그림은 한학우가 타일에 그린 우리성기의 모양입니다.

만든곳 헬스토리 총여학생회 잡지팀
만든이 강동, 별리
발행일 2002년 5월 20일
디자인 문화잡지 보일러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문창회관
4층 총여학생회 T 510-1924
home.pusan.ac.kr/~herstory

이렇게 유지되는 성매매, 바꿀 방법 여기있습니다.



얼마전 경찰이 완월동 성매매업소의 포주들을 불러다놓고 화제방지 교육을 시켰다는 뉴스를 보고는 이 나라가 갈때까지 갔구나 싶었던 기억이 있다. 이것은 완벽하게 화제만 만나면 욕만 먹는다는 지극히 연발에 오줌 누기식 행정이다. 수차례 일어난 성매매의 업소의 화재사건과, 최근 경찰에 대한 성매매업소의 상상납 적발 사건 등을 통해서 경찰과 포주들이 어떻게 결탁해있는지 충분히 알 것이다. 또한 둘의 역학관계 속에서 애들은 매춘여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역시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하여, 매춘여성도 포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성을 사는 남성들도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장한다는 것이 이른바 '공정'이다. 심지어, 김규형과 김정란 같은 유명자식인들까지 소리높여 주장하는 것이 이 '공정'인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의 상황은 사실상의 공장제라는 것이다.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곳에는 언제나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라는 뜻말이 붙어있으며, 성매매검진소도 하나씩 꼭꼭 있어서 매춘여성들은 이곳에서 매일 허가증을 받고 나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경찰과 포주들 사이의 친분관계까지. 죽어나는 것은 여성들 뿐인 가장 더러운 형태의 공장제도인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대로, 아무리해도 성매매는 없앨 수 없으니, 용지의 공장제를 양지의 공장제로 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인신매매와 감금과 착취가 없애야 보다 민주적으로 개인의 신체권은 사고 팔 수 있는 건전한 성매매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인프라가 필요하며, 향상되는 인권이라면 어느 정도일까? 그 여성들은 가족친지와 사회에 공방에 다닌다고 멋있이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부자들은 아니든 매춘에 대해 직업의식을 갖고 매춘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까?

대만과 일본 등의 경우처럼, 역사적으로 현실화된 공장제는 언제나 '실제'로 결론났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건전한 공장제가 필요로 하는 그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으로 성매매를 근절해야한다. 왜? 돈이 아까우니까.

한국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법은 "윤락행위등방지법" 단 하나인데, 이 법에 따르면,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쌍방에 벌을 주도록 규정되어있다. 이 쌍벌조항은 성매매 피해여성까지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경찰서에 '신고' 할 수 없게끔 하고 있다. 그리고, 성관계자와 중간매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여성성매매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복지/직업재활 정책이다. 이것이 없다면 피해여성들의 탈매춘이 불가능해진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복지 지원책을 확립하여야, 직업재활 정책이 없으면 그 여성들은 다시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 시장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런 모순적인 법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새을터비 비롯한 성매매 근절 운동 단체들이 '성매매 특별법' 사안을 만들어 9월 정기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성구매자와 매춘여성에 대한 쌍벌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대신 장애인, 외국인 여성, 청소년,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및 구금 협박, 위계欺騙(欺騙) 채무로 인해, 금성매매를 강요받는 자, 마약 등에 중독돼 성을 파는 자 등을 성매매된 자로 통칭하고 이들에 한하여 불처벌 규정을 내리고 있다. 또한 포주와 알선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별리 ddosy@freecat.com

성매매 근절의 움직임, 부산에서도



성매매라고 하면 미군 기지촌을 떠올리고, 또한 일본군위안부에는 죄를 미치지만 같은 '민족' 간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무관심'이 있었을 정도로 애만하고 있을 뿐들이 많을 듯하다. 우리기반적이고 있는 부산이라는 땅에서도 성매매업소 폐쇄나 인신매매라는 곳이다. 폐쇄나 인신매매는 인신매매 300여 명, 인신매매 60여 명이 부산을 떠났다는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산에서도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성매매 근절 운동의 움직임이 있다는 좋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들은 이들도 사육소도 없지만 기원복사지도를 모으고 교육하는 등 목발작업이 한창인 대형검거를 만나 인터뷰를 해왔다.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활동상은 어떠한 것인가?

부산과 군산의 연이은 화재사건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삶을 세상에 알리게 된 큰 계기가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서울과 경기, 군산의 경우 지속적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작년 완월동 화재사건에 대한 대책활동을 벌이고 난 후 지속화 작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 부산지역 성매매 근절 활동의 필요성을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활동을 할 것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활동은 현장상담을 중심으로 하고 할 것이며 직접적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만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의료적, 법률적상담을 진행 할 것이다.

다른 성매매 근절 단체와의 연계는 어떻게 되나?

다른 단체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새을터비와 한소리회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열심히 활동해왔고 또한 우리 부산이 그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더 배우고 또한 사건의 연계를 해야만 한다. 몇개 단체가 전국에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모두 지원한다는 것은 아주 무리가 많기 때문이다.

여태껏 군산과 부산에서 성매매업소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산지역에서는 지난 1년간 경찰이 나름대로 성매매 여성들의 탈매춘을 돕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행정적인 상황은 어떠한지요? (지난번에 티비에서 포주를 앉혀놓고 화제방지 교육하는 거 봤는데.) 부산지방경찰청이나 관할 파출소 역시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는 시각이 우리의 무척 다르다. 그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가나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들이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현재 아주 폐쇄적이고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을 직접 만나기 힘든 부산지역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경찰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는 시도해 갈 것이다.

완월동에 상담소 혹은 센터가 차려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쯤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 요?

부산지역은 여성단체가 직접 들어가서 활동하는 만큼 위험부담이 많고 예측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일단 현장에 상담소를 내는 것은 확실하나 지역을 선정하지는 않았다. 되도록

이번 완월동에 상담소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자원활동가 교육을 마치고 5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설명회를 앞두고 있어 이것이 끝나는대로 현장 활동 계획이 수립될 것 같다.

자원봉사자를 뽑는데, 체계는 어떤 식인지요?

부산여성단체연합에서 함께 교육이나 방지법설명회와 하반기에 성매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현장상담에 대한 부분과 각 여연단체에서 함께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전적으로 이 사업을 맡고 있으며 또한 이 자원활동가들이 현장상담의 실질적인 핵심역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원활동가들의 일정과 의지가 많이 필요로 된다. 현장상담은 현재 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약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여성발전기금에서 약간의 보조를 받고 있으나 인건비는 하나도 없다.

앞으로 인건비는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 다.

자원봉사 교육을 5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자원활동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그렇듯이 성매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상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움과 충격을 많이 받았다. 성매매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의견이 분분하고 혼란스럽지만 자원활동가들은 교육 전에 이미 현장에 대한 실상도 눈으로 보아왔고 또한 그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논의 했던 분들이기에 열심히 해보고자 의지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다.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 같은 건 없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난관은 어떤 건지 여쭙고 싶네요

부산지역의 실태나 자료가 너무나도 없어서 힘들다. 사전자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서 다른 지역의 실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한다. 또한 업주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 많이 된다. 그러나 적극적인 홍보와 여론을 만들고 지속적인 현장활동만이 이 분위기를 바꾸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별리 ddosy@freecat.com

反성폭력 학칙 전면개정

反성폭력 학칙 전면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엔 反성폭력 학칙이 있어요!

요 몇 년 사이 '대학-성폭력박물관'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대학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온 세대기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대학도 우리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문 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잘못된 문화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기에 또다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대학일 거예요.

학내 다양한 성폭력, 규제력있는 학칙이 필요하!

교수에 의한 성폭력, 학생들간의 성폭력... 부산대학교에서 총여학생회에 신고된 시간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순환버스 성폭력, 시간당사의 언어성폭력, 자취방 성폭력, 자연대 교수 성폭력, 동아리 동기들간 의 성폭력, 화장실 성폭력, 도서관 입합실 성폭력 등등...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활권 측면에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효와 그 절차상의 부담 등 법적 해결의 부적합성도 존재 하고,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예방·규제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상황에 맞는 학칙, 규제력있는 학칙이 필요합니다.

反성폭력 학칙, 왜 개정해야 할까요?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부산대학교에서는 99년도에 反성폭력학칙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의 해결과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미흡한 학칙이었기에 몇 년간 총여학생회에서 개정작업을 벌였습니다. 실제로도 예방과 규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학칙을 만들고자 했었거든요. 그 결과로, 드디어 反성폭력 학칙의 개정을 앞두고 있어요. 총여학생회와 학생처 차의 10여년의 연담을 통해 의견조율을 끝내고, 현재 교수회의에서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학칙개정.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 성치별을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 포함시킵니다.

부산대학교 학칙에서의 성폭력의 범위는 '성화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성화에 기반한 차별'이 성폭 력에 대한 정의에서 포함되지 않았았어요. 법에서도 성차별은 성화물이며 성폭력이라고 인정하고 있 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성폭력의 정의에 '성화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포함시킵 니다.

제1장 2조 1항(성폭력의 정의) 9호

성화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성폭력 가해자의 동조자, 2차 성폭력을 성폭력에 포함시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경우에는 성폭력 가해자의 동조자들과 2차 성폭력을 가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가해자의 동조자들이 '가해자가 그럴 리 없다. 피해자 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일을 신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피해자가 너무하다', '피해자 가 괜히 신고해서 과분위기 만들고 과잉반응을 사간다' 등등의 말을 하고다니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 다. 성폭력 가해자의 동조자들이 행하는 이러한 발언과 행동들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성폭력 못지 않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1장 2조 1항(성폭력의 정의) 10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압박이나 물리적인 감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천명합니다.

反성폭력 학칙은 분명히 성폭력 피해자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99년에 학칙을 통해 처리된 사건을 보면, 상문리위원회의 위원들이 피해자 중심의 사건 파악을 하지 못해 '시간표도 같이 봤지 않느냐, 너도 좋아했던 것 아니냐'는 등의 언어폭력을 피해자에게 가했었습니다. 성폭력 해결과정에서 이러한 폭력을 막고 피해자 처용가 가장 중점이 되는 해결과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 의 원칙을 학칙에 포함시켰습니다.

제1장 4조 신설

(피해자 중심의 원칙)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 용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

● 상문리위원회 → 성폭력 대책위원회

한 상문리 위원회의 활동의 목적을 제대로 담지 못했던 '상문리위원회'의 이름을 '성폭력 대책위원 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 안에서 학내 구성원의 3주제, 특히 학생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전체 9인중의 3인 이상(기존 2인)을 학생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9조(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3항 학생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총여학생회 등 여학생 대표기구의 추천을 받아 위원 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시킵니다.

99년 학칙에 최후된 사건의 해결과정을 보면,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을 불신 하여 회의 도중에 나가버리는가 하면, 대리인이 압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직접 불러서 조 사하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칙개정에서는 피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자가 특정인의 권여를 거부할 권리와 답변을 거부할 권리 도 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건사고를 접수한 자와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이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출할 수 없게 하였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사건을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 리인을 통하여 조사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제1장 5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폭력 행위의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피해자나 대리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1. 특정인의 권여를 거부할 권리
2.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기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② 사건사고를 접수한 자와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피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조사해야 한다.

④ 성폭력행위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가 위 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직접 회부, 의견을 통해 처리한다.

● 성폭력 상담실 상담원의 자격요건

본대 학칙에는 상담실 상담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성폭력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 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상담을 받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성폭력상 당한 교육을 수료한 자 중에서 상담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1절 7조 1항

...상근 상담원은 여성학 관련전공교수 또는 석· 박사 과정을 이수한 전공자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자 중에서 학생생활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정리 거부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장애인의 70.5%가 한달에 5회도 외출하지 못하는 현실!
그 현실은 장애인을 구조화된 '사회감옥'에 평생을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킨 사회적 책임입니다.
또한 그 사회의 부끄러움이요, 사람에 대한 차별입니다.

매주 토요일 1시, 서면 태화백화점 앞에서 진행됩니다.

access.jinbo.net

빵이 굶자가 우리 나이적엔? 노혜경을 만나다

언제나 특근한 빵이 굶자. 예전으로 돌아가는 시인 노혜경 선생님. 인터뷰에서 반복 말해지는 시적 이미지로 떠오른 빵은 항상 노혜경 시인이 있었다. 지금 아홉사이터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노혜경 선생은 부산대 국문과 졸업생이시고, 부산대 기사와 부산3대 정음교수로서도 있다. 언제나 시로써 자신을 보살피는 일에 열정을 지니는 선생님. 기쁘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 몸이 아프지만, 마음을 치는 독인 노혜경 선생님이 빵이 아프다 시 인터뷰를 특별으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 인터뷰를 하고 아홉 사이터 선생님을 몇몇 개 문제 밖에 안한다. 더 좋은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독자분들께 양해를 말씀드리고 싶다. 각문은 노혜경 선생의 대학시절과 지금으로 나누어진 것을 썼다.

국문과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내가 입학할 당시는 소위 계열별 모집이어서 2학년때 학과를 변경한었는데, 처음에 철학과로 진학하려면 계획이 일학년때 친해진 국문과 교수님들과 선배들 바람에 약간 틀어져서 국문과로 가게 되었다. 국문과생으로서의 생활은 시대적 배경이 주는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즐거웠다. 기억에 남는 일은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들리면 3학년 때 여학생들과 총대로 선출한 일이다. 유선말기의 임명직 총대를 거부하고 우리가 직선으로 뽑은 여학생 총대를 학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직으로 인정해준 가부장적 과시스트 박정희 정권 시대의 교수님들에게 세상 고마움을 느낀다. 당시 국문과는 학과 번호 1번 학과답게 약간의 낭만이 살아있었다. 찾아보면 끝도 없지만, 강의에 대한 추억이 많다. 특히 김영송 선생님의 음성학 수업과 김일웅 선생님의 언어학개론 수업은 평생 윤택하게 보낸다. 중세 국어를 가르치던 교수님 수업이 학점이 짜고 강의가 지루하다고 폐강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남학생들을 유혹하면서 정족수 맞춰서 수강한 일도 있다. 새 학기를 그렇게 했는데, 덕분에 두시언해니 하는 중세한글 문헌을 읽는 때는 도사가 되었다.

문제(?) 동문출신이지만, 특별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아, 그것도 워낙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가장 대단한 것은 연애한 일... 남편하고는 대학교 1학년 초에 만나 1년 동안 틈만 나면 싸운 끝에 2학년 때부터는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다. 그런데 연애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과 교수님들한테 불려가 자주 야단을 맞았다. 공부에 방해된다는 것이다. 여학생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학업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남존여비 사대의 비극이다. 공부를 계속 하고 싶으면 그만 사귀라는 압력과 최후에도 굴하지 않고 군대 3년 가 있는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다니고 편지를 천 통 넘게 주고받으면서 결국 결혼했다... 이게 문제 동문다운 대답인가? 싶은 학부 때는 나는 문학회 활동이나 야하, 봉사활동 등등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으되 비교적 체계순응적인 학구파였던 것 같다. 대학교 졸업하고 실천문학사에 취직하면서 인생이 확 달라졌다.

교자를 만들 때 기억나는 일이 있으시다면?

2학년, 3학년 2년을 교편위원을 했는데, 2학년 때는 예산집행이 안되어 제때 내지 못하고 3학년이 되고 나서 책을 만들었다. 그 바람에 나하고 문예부장 두 사람이 마지막에 인쇄소에서 작업을 했는데, 책 맨 앞에 실리는 화보를 구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원고를 써서 조판을 했다. 당시는 컴퓨터가 있던 시대인데 컴퓨터를 받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책 나오고 나서 그 글들이 문제가 되어 담당교수님이 기관에 불려가 고생을 하셨다.

3학년 때는 원고를 거의 다 모았을 무렵 부마항쟁이 터지고 학교가 무기한 휴교에 들어가 버렸다. 교편실이 수색당할 것을 염려해서 학교 행정직원 언니의 출입증을 빌려서 들어가 숨어있다가 어두워질 무렵 라면박스에 원고를 담아 담장 개구멍으로 훔쳐내었다. 나 혼자 했는지 둘이 했는지 기억이 없는 것을 보면 혼자 한 것인데, 개구멍을 빠져나오다가 경비서던 해병대 군인이 공포탄을 쏘는 바람에 거의 실신상태가 되었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들으니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쏜 오발이었다는데, 나는 꼭 나를 향해 쏜 것 같았다. 군인들이 철수한 뒤 교편실에 가보니 캐비닛은 뜯겨 있고 보관했던 책들도 거의 다 사라지고 없었다. 아까운 소중한 책들을 많이 분실한 셈이다.

강의하시면서 느끼기에 그때와 지금의 대학생 이런 점에서 다르다, 라는 것이 있다면?

수업 자체에 임하는 태도는 지금의 학생들이 더 열중한다고 생각한다. 수업태도도 좋은 편이고 토론에도 잘 참여한다. 그러나 학문 자체에 대한 탐구심은 부족하다. 그리고 자신이 완전한 한 사람이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 70년대의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특권층이고 혜택을 받았으며 지도적 계층이란 자의식이 있어서 독서와 교양에 대한 갈망이 강했다. 학교 앞의 고서점이나 작은 서점을 거점삼아 상당히 많은 책을 읽었다.

요즘 학생들에겐 대체로 표피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체계적 독서에 대한 갈망이 없는 듯이 보인다. 자기장제성을 확보하려는 근대적 열망의 부족이라고나 할까? 동일성의 시대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는 탈근대는 위험해 보인다.

다만, 지방대라는 한계에 스스로 갇혀있던 70년대 부산대학생들에 비해 요즘 학생들은 행동반경이 넓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최근 특히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산대의 변화의 바람을 선행해서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 꼭 해보았으면 하는 것,이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책을 많이 읽을 것. 전공 공부를 이만하면 좀 안다 싶을 정도는 할 것. 철학과 논리학 강의를 들을 것. 전국일주 도보여행을 해볼 것. 대선, 총선, 지자체선거 등등 각종 선거의 자원봉사자를 해볼 것.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가적 행사의 자원봉사를 해볼 것. 연극보러 다닐 것. 락 공연에 갈 것...

하라는 게 너무 많지요? 다 해보세요. 연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마지막 한마디(교훈만발의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훈이라...? 그런 거 취미 없는데...

적극적으로 사회변화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라.

약자와 연대하려는 정신을 가져라.

노혜경

시인, 부산대 강사, 58년 개미, 부산대 국문과 졸업, 실천문학사 근무, 열음사, 일세, 세계문학 등에서 편집장 생활, 현재 부산대 강사, 부산외대 겸임교수로 있음. 아름다운 진보잡지 아웃사이더 편집위원이기도 함. 95년에 첫시집 〈새였던 것을 기억하는 세〉, 99년에 두번째 시집 〈뜰어먹기 좋은 빵〉을 펴냈습니다.



HerStory

총여학생회가 주최하는

특별주간 '몸과 성을 말한다' (내 생애 가장 특별한 한주)행사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대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된다. 부산경남 여성이반 인권모임 안전지대 1대 회장인 윤지현씨의 <홍석천과 하리수 사이>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시작될 행사는 강연 외에도, 미술창작집단 <가치>와 미술대학우들의 작품 전시, '성'을 주제로 한 학우들의 타일그림 전시, 퍼포먼스, 콘돔서약식 등으로 다채롭게 기획되었다.

● 5월 20일 4시반 본관 3층

<홍석천과 하리수 사이> 강사 윤지현
6시 교문앞
퍼포먼스

● 5월 21일 4시반 본관 3층

<상대방의 몸과 마음 공략법> 강사 심김 귀득

● 5월 22일 12시 기계관앞 콘돔서약식

6시 교문앞
퍼포먼스
중도 계단 (about sex) 전시시작

24일, 부산대 학우들

중도 로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전시 시작

24일, 미술창작집단 가치

교문앞 <open your sex> 전시

24일, 부산대 미술학과

● 5월 23일 11시 30분-5시 <Street 피임>

● 5월 24일 6시 교문앞 퍼포먼스

총여가 준비하는 두 개의 강연회

<홍석천과 하리수 사이>와 <남과 여, 상대방의 몸과 마음 공략법>

홍석천과 하리수 사이

낯선 질문 던져보기. 당신은 왜 이성애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이성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당신의 답은 무엇인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라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동성애자에게 이런 질문을 너무나 쉽게 던진다. 그들에게는 동성애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말이다. 과연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경계는 무엇인가.

이미 게이와 트랜스젠더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홍석천과 하리수를 통해 우리는 어쩌면 조금씩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나아졌는가? 우리의 인식들은 정말 바뀌었는가?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트랜스젠더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호모포비아를 깨자! 그리고 고민해보자.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당신은 진정 이성애자인가? 동성애자인가? 부산경남 여성이반 인권모임 안전지대 1대 회장 윤지현씨가 5월 20일 4시 30분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홍석천과 하리수 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남과 여, 상대방의 몸과 마음 공략법

"당신의 성감대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 귀, 목 등의 신체 일부분을 생각할 것이며, 심지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의 가장 큰 성감대는 바로 '마음'이다. 90년대 성이라는 달콤이 유행되면서 이제는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배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제는 조금 다른 식의 성인식과 성교육이 필요하다. 섹TM의 화두 그것의 시작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남과 여, 상대방의 몸과 마음 공략법>이라는 주제로 심김귀득(현 상심외국어대학 교수)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5월 21일 4시 30분, 장소는 본관 3층 대회의실이다.



'콘돔서약식' 5월 22일 기계관 앞에서 콘돔, safe sex, happy sex

특별주간 시작되기 전부터 부산대 자유게시판에서 논란거리가 되었던 콘돔서약식은,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서 '실질적 강제'로 행해지고 있는 '순결서약식'을 패러디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순결'이라는 애매모호하고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확실한 피임을 통해 자신의 성을 책임감 있고 건강하게 즐기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 임신의 공포는 섹스시의 불안감으로 작용하여 행복한 섹스를 즐기게 한다. 이러한 섹스시의 불안감, 섹스와 임신의 공포, 나아가 낙태로 인한 여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피임을 해야 한다.

다른 피임 방법 중에서도 콘돔은, 사용법 숙달시 피임실패율이 1%내외로 가장 낮으며, 경구피임약의 호르몬 성분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HIV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최대 100%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임질, 매독, 트리코모나스, 골반 내 장기 감염 등도 콘돔의 예방효과가 최대 9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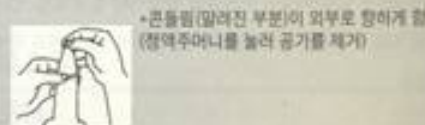
콘돔서약식 행사는 기계관앞에서 5월 22일 12시부터 진행된다. 많은 기계관 학우들의 엠프사용 반대와사를 수렴해 엠프사용은 안하도로 수정이 되었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카다란 광목천에 서약의 의미로 자신의 손바닥을 찍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자신의 손바닥 도장을 잘라서 예쁜 티셔츠로 만들어 준다고 한다.

콘돔사용을 '서약'하는 것은 나의 건강한 섹스를 위한 것임은 물론, 내가 사랑 하는 상대방의 건강한 섹스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책임없는 섹스로 인한 낙태, 그로 인한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면, 유배우원의 정신으로 콘돔이라는 섹스하지 말자. 그것은 섹스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safe sex, happy s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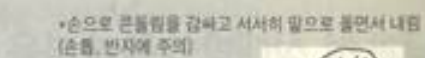


콘돔의 사용법

콘돔은 발기후부터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정 직전에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성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사정 전에도 성적 흥분으로 소량이 분비되어 나오게 되며 이 분비액에는 약 100만 정도의 정자가 존재하기에 임신의 위험이 있다. 착용시에는 꼭지 부분을 꼭 잡고 발기된 음경에 착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공기가 들어가지는 콘돔이 벗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단, 무리한 힘을 주어서 손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콘돔은 사정 후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음경의 다 알을 수 있는 크기의 콘돔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섹스시간이 길어지면 수분상 윤활 제지용성을 버리면 콘돔이 녹는다는 이유로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하나, 콘돔을 살때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2년 이상이 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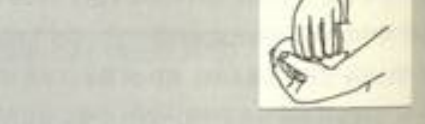
•콘돔팁 (말려진 부분)이 외부로 향하게 함 (장액주머니를 눌러 공기를 제거)



•손으로 콘돔팁을 감싸고 서서히 말로 풀면서 내림 (손톱, 반지에 주의)



•성행위 후 콘돔팁을 손으로 잡고 여성 생식기로부터 제거 (발기 유지 상태)



•콘돔 분리시 장액이 흐르지 않게 주의. 휴지통에 버림 (재사용 하지 말 것)

콘돔이 뭐길래

최근 자유게시판에서 일고 있는 콘돔서약식과 관련된 논쟁을 지켜보며 어찌면 이 다지도 '도덕적'일까 하는 생각이 깊어졌다. 그들에게 순결서약식은 당연히 이해되고 될 수 있는 것임에도 콘돔서약식은 더럽기 짝이 없는 것을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그로인해 서약식 운운하는 너희들이 대단하다는 것인가.

왜 당신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왜 남들의 사생활은 건 신경쓰지 말고 자신만의 입장에서 그것의 이유를 말하여 보라.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남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때 발생한다. 다른 사람이 또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순결을 지키는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이 순결을 지키는 말든 관심 없다. 물론 제일 악질은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순결 유무는 따지는 사람이지만 말이다. 상당히 의심스럽긴 하지만 자유게시판에서 순결 운운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은 순결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겠지? 안 그런 그 사람 진짜 뻔뻔스럽다.

왜 당신은 콘돔을 더럽다고 생각하는가. 사랑의 행위에 임신가능성을 포함한 계산적인 생각들이 끼여 있다는 게 싫다는 것인가 아니면 섹스 자체를 불결하다고 여기는 것인가.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흔히 사랑하는 내 사람에게는 나의 순수한 몸을 주고 싶어하는데 그런 사랑의 한 표현 방식인 섹스행위 왜 더럽다는 것인가. 그러면 나중에 당신은 배우자가 잘자리를 원하는 데도 더럽다고 피할 텐가. 섹스행위에도 결혼전과 결혼후가 있어 그 질이 현격하게 달라진다는 것인가. 섹스행위도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이다. 물론 두 사람이 모두 원할 때야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애인사이라도 부부사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은 강간이니 말이다.

두 사람이 원하고 이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 때 섹스행위를 한다. 근대 사랑의 표현행위인 섹스행위에는 임신이라는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특히 여성은 실제로 임신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위험요소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크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상대방도 원하는데 임신 때문에 불안하다면 그 때는 피임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피임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콘돔이다. 흔히 복용하는 피임약의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고 매일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대학생활 중에 갑작스럽게 맞게 되는 섹스행위는 두 사람 모두에게 낯설고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많기 때문에 따로 콘돔을 준비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 그래서 서운하게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특히 여성에게 크나큰 시련이 된다. 그리고 콘돔 없이 하는 섹스행위가 과연 여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마치 시험을 앞두고 놓고 있는 심장처럼 머릿속으로는 어찌면 임신하지도 모른다면 생리난파를 계산하는데 여념이 없는데 과연 당 편히 섹스행위에 몰두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또 여성들은 콘돔 얘기를 꺼내면 괜히 강압받은 것처럼 비쳐지거나 싫을까 하는 마음에 쉽게 콘돔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궁공대는 경우도 많다. 이번 자유게시판 논쟁에서 충분히 드러났듯이 콘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갖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에도 '얼마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다가 덜컥 임신이라도 됐을 때는 나랑 나랑 상관없다 생각까나 손발잡고 병환가 주변 그만이다?

사실 콘돔 얘기를 스스로 꺼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순결서약식이 편히 존재하는 행편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번 콘돔서약식은 이러한 콘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후사나 있을지 모를 섹스행위를 위해 나의 몸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불행히 태어난 아가들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여실도 맘 편하길 수 있으려면.

난다 donghwa98@naver.com



그녀는 왜 졸업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비교로 졸업사진을 찍는 시군이다. 문득 문득 문득에 막판에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이 보인다. 비슷비슷한 머리모양에 비슷비슷한 색의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졸업사진을 위해 웃고, 머릿도 새로 한다지만 별로 다르지 않다. 속속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더 어둡게 보이는 졸업사진. 그런 졸업사진에 대해 복만(?)을 갖고 있는 몇몇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녀는 왜 졸업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장 소 총여학생회실
일 시 2002년 5월 10일 오후 10시
참석자 고만고만한 졸업사진이 싫었던 사람들

둘씩 졸업사진 찍으셨어요?

분꽃 아니요 나는 졸업사진 별로 안 찍고 싶었어.

비교 나는 찍지 않았어. 애들 보면 졸업사진 찍을 때, 머리고 화장하고 난리나잖아. 사실은 평소의 내 모습도 아니고 애들이 예쁘게 나오게 해야 한다고 하잖아. 나도 욕심, 그런 나도 비교당하긴 싫잖아. 못났게 나와서, 근데 또 그것거리는 하기 싫거든. 그래서 아예 비교의 반열에 안 들어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마술 졸업사진 찍는데, 그래서 한명이 그냥 생머리에 왔어 찍었는데, 진짜 어두침침하고 느낌이 뒀나면 평소의 있는 아주 칙칙하게 나왔어. 원래 되게 수수하게 이쁘는데.

비교 제 친구도 다 늘어긴 티에 그냥 자켓하나 걸치고 청바지 입고 개는 원래 화장안하고 립스틱만 바르거든. 평소엔 청순한 이미지 그대로거든요. 피부 깨끗하고 넘 예쁜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하나도 안 나오고 아가 칙칙하니까 그래왔는거라.

토리 남자들 바퀴벌레 입은 거 보기가 싫어. 검은 양복 입고.

마술 코복입은 것 같아.

분꽃 무거운 졸업앨범, 것도 돈주고 팔래?

둘씩 칠만원인가 팔만원 할래?

비교 내가 색선별로 나눠서 팔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구. 사실 다 필요한 건 아닌데.

분꽃 사진 관련해서 학생회와 아권개입 그런 것도 있던데.

둘씩 그런 얘기가 있네.

비교 글구 나는 도도해사가 아니라, 내가 피사체가 되고 그 사람이 찍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어떠한 소통도 없는 그래서 난 그런 거 되게 싫어. 차라리 친구들하고 잘 찍어도 좋잖아.

둘씩 근데 사각모 쓰고 있는 거 다 찍어야해?

비교 난 그것도 안 찍었는데.

분꽃 그것도 안 찍는 사람은 안 찍던데. 사각모도 사실은 억수로 웃기잖아. 난 것도 안 찍었어.

토리 왜 졸업식 때 학사모를 엄마나 아빠 댕끼드리잖아. 사실 좀 어색하지.

분꽃 근데 거기는 하고 싶던데. 사각모 던지면서 사진 딱 찍고 그런 유치한 짓거리는 같이 하고.

마술 난 (학사모 쓰지) 싫는데, 해줘야 될 것 같은 거라.

토리 엄마가 심심해 할까봐?

마술 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일동 웃음)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집에서 내가 처음으로 대학을 들어갔어. 우리 집안에서, 엄마대 아빠대 아무도 안 계시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들 기대가 엄청났어.

(눈범 등장)

둘씩 졸업사진 찍었어요?

눈범 어

분꽃 나는 그말이 너무 싫더라. 졸업사진 보고 신들이 온다고 예쁘게 찍어야 된다고 다들 마.

비교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니까.

분꽃 그러니깐, 그것도 너무 웃기고.

마술 그말 알아요? 왜

눈범 우리 과에 어떤 애가 청바지에 그냥 맨티 흰색에 가다간 하나를 걸치고 왔어. 그러니까 교수가 "오늘은 졸업사진인데 좀 차려입지 그랬냐" 그러네.

헬스 재수없다.

눈범 왜 아무 옷이나 입고 왔냐고 투덜투덜거리고.

마술 그유미 있잖아요.

비교 인물대 (호츠키츠로) 화 찍한다고?

마술 공대는 아예 발라놓고, 못생긴 애들은 청대일로 다 바꾼다고.

비교 예술대만 본다면 이런 말 있잖아요.

비교 사진하고 실물하고 다른게, 우리과 예쁜애들은 다 못났게 나오고 못난애들은 다 이쁘게 나왔더라.

헬스 내 아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같이 나왔더라.

눈범 어, 내보고 이쁘게 나왔다고 하던데.

(다들 웃음)

비교 어,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냐.

(다들 웃음)

분꽃 어쨌든 그 증명사진 스타일 정말 싫다.

헬스 그렇게 몸잡으라고 하는 모양이지.

비교 미스코리아처럼 포즈 잡으라고 한다던데.

헬스 그게 표정이 이상하던데.

둘씩 내 친구 말로는 아저씨가 몸 잡으라고 하는대로 하는게 절 자연스럽다네. 거기에서 자기랑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진짜 이상해 보인다네. 벨리랑 들어서 봤는데, 과마



다 다르드라이가.

여자들이 많은 과는 온갖 포즈를 다 취했는데, 공대는 좀 정갈기는 하더라.

비교 하기사 남자 우르르 있는데 여자 혼자 이리고 있으면

비교 요새는 그런 것도 있던데. 사디롬에 동영상 상봉이나 일본끼리로 광고처럼 자기 멘트를 달는 거라. "누구가 즐거웠다" 이런 거 있잖아. 파벨로 그럴 때는 안 차려입고 오히려 더 일상적인 차림으로 하더라.

눈범 근데 (찍으니까) 재미있더라. 졸업사진 찍는 그날 자체가 축제 같잖아. 평소엔 학년들이 모이기도 힘든데, 아저씨가 사키는대로 하니깐 재미있는 거 있잖아. 웃겨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찍는 순간에는 그런 생각 잘 못한다.

비교 어쨌든 새로운 개념의 졸업사진이 도입되면 재미있을 것 같다.

토리 나는 다른 여학생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호들갑의 대열 속에 끼어있는게 너무 부끄러운 거 있잖아. 그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 보면 쟁쟁하면서 그렇는데.

분꽃 형식자체가 다 똑같이 똑같이.

토리 사진 찍기 전날 우리 과에 다섯 명이 있었는데, 두 명은 머리하러 가고, 두 명은 옷사러 가고.

눈범 칠십 프로 이상이 새 옷입잖아. 학교 앞 어느 화장품 가게 가면 화장도 할 수 있잖아.

분꽃 다른 학교에 다니는 내 친구가 남학생인데, 저거 졸업사진을 찍는데, 여학생들이 졸업사진 찍는다고 다들 머리고 하고 화장도 한다고 해서 억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어떻게 변해왔는데, 별로 다른 거 없더라면서.

비교 고등학교때 무슨 막바르고.

헬스 그때는 그게 최대치였지.

눈범 아냐, 화장하는 애들도 있었지.

비교 친구들이 억지로 발라야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더 이상하게 나오고.

토리 의외로 그라운 애들도 없더라. 열병 찍어놓으면 나중에 도움되지 않겠냐고, 보고싶은 애들 앨범에 있다고 그랬는데.

비교 그런 애들은 연락하고 가져지 않나. 중고등 학교까지는 진짜 앨범 안 보게 되더라. 차라리 초등학교 때 거, 글구 너는 화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 그랬거든. 그리고 똑같은 단발에 교복 같은 거 입고 그런 거 싫더라.

분꽃 눈에 독기라는 독기는 다 있고.

둘씩 고당 때 눈이 되게 나았는데, 사진찍을 때 안경을 벗고 찍었거든요. 근데 억수 명청하게 나와서 다시 보고 싶지가 않아. 고당 때 앨범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

비교 그렇지, 그때는 앨범을 안 산다는 게 굉장히 원가

뛰는 행동이라서, 돈은 부모님이 내셨기 때문에.

둘씩 난 초등학교 앨범은 친구가 앨범 빌려가놓고 안 해서 없어.

토리 대학 졸업앨범이 선에 쓰인다는 좀 아재가 되는데, 왜 초등학교 때 도 앨범보고 애들이 전화하고 그러잖아.

분꽃 근데, 졸업앨범 왜 만드는데 그냥 졸업하면 되지.

둘씩 알말의 아쉬움

눈범 나는 요번에 앨범 안 산다고 했는데, 동기들이 같이 찍자고 해서 (사진은) 찍었어. 나도 바빠서 찍기는 싫었어. 근데, 내가 졸업하는데 나는 (앨범을) 안 산다고 상관이 없지만 같이 졸업 동기 사진도 있으면 하는 거지. 안 찍은 사람이 있었는데, 친하지 않더라도 아주 서운했지. 이게 전체로 나오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전체로 나온 거 안났을 거야. 근데 우리과 사람들이 나오니까 사는 거지.

둘씩 그럼 이제 고마 정리하자.

다들 와 주셔서 감사, 좋은 말씀에 감사.



월장

부산대여성주의웹진

의 다음호 기획 **‘당신들의 월드컵’**
5월 30일, 월드컵 개막과 함께 업뎃됩니다. 월드컵이 제공하는 어느 이미지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가동원의 이데올로기, 성차별, 월드컵으로 때아니게 억압받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삶, **여성의 눈**으로 까발렸습니다. coming soon!

www.wallzzang.net

건강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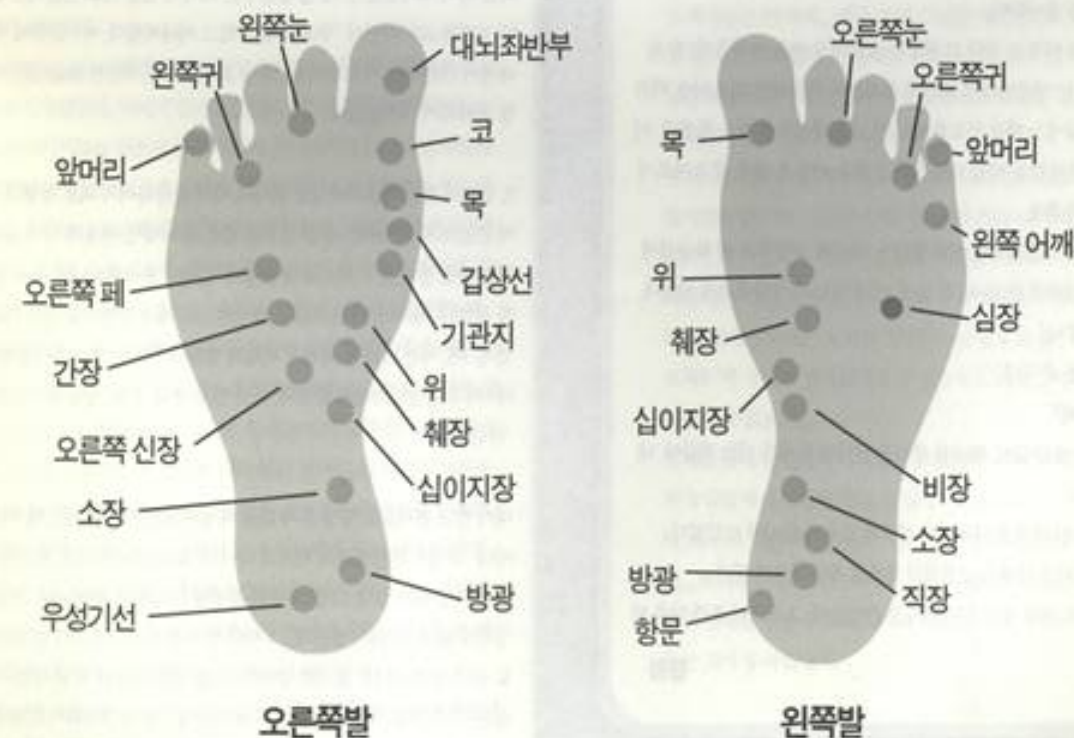
발지압법

발에 온몸이 다 들어 있다고 한다. 몸이 아플 때 간단하게 발반사요법으로 발을 자극해주는 것도 건강의 비결이 될 수 있다. 어디가 반사구인지 한번 살펴볼까?

발반사요법을 시행할 때는 반사 부위가 양쪽 발에 똑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양발을 다 자극해줘야 한다. 먼저 기본 반사구를 자극한 후에 질병이 있는 반사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한다. 양쪽 발을 20분 정도 마사지 한 뒤 질병이 있는 반사 부위를 집중적으로 3~5분간 지압한다. 이때 통증이 심하면 가볍게, 통증이 가라앉으면 조금 세게 자극한다. 발반사요법을 할 때 처음과 끝은 항상 기본 반사구 자극이다. 심장-수요관-방광-요도의 순서로 자극하고 아픈 부위를 주물러준다. 마사지가 끝나면 기본 반사구를 다시 한 번 눌러준다.

식전이나 배가 고플 때는 하지 않는다. 식후 30분 정도 지난 후 하는 것이 좋다. 발반사요법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기본 반사구인 비뇨기 계통을 자극한다.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의 개념. 마무리할 때는 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발등을 마사지할 때는 크립을 넉넉히 사용한다. 발등은 발바닥에 비해 피부가 얇고 부드럽기 때문이다. 몸에 심한 상처가 있거나 종기가 났을 때는 하지 않는다. 법정 전염병, 악성 종양, 폐결핵, 중증의 심장병, 뇌출혈 등을 앓고 난 뒤에도 하지 않는다. 여성은 생리 중에는 삼간다. 체온이 높거나 맥이 부정맥인 경우, 호르몬제를 장기복용한 경우, 코피가 날 때도 하지 않는다.

왼발부터 시작해 오른발에서 끝낸다. 오른발 자극은 각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왼발 자극은 전신의 혈액 순환을 돕는다. 마사지 방향은 밑에서 위로 한다. 즉 심장 쪽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발반사요법이 끝난 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신다. 찬물은 피한다. 발마사지를 통해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노폐물들이 소변과 함께 수요관을 통해 몸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돕는다. 발 반사요법의 횟수는 각자의 나이만큼 적당하다. 1주일 정도 하면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한다면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남자들은 모른다

● 여자들은 왜 약을 안먹고 생리통을 참는가?

생리에 대한 기억 하나. 중학교때 생리통이 무척 심한 친구가 하나 있었다. 하루는 그 친구가 배가 너무 아파서 막 울었다. 너무 아파서 친구들 품에 안겨 울 지경인데도 그 친구는 생리통약을 먹지 않았다. 이유는 생리통약은 먹어버리면 중독된다는 것이다. 생리를 처음 시작하고 생리통을 처음 겪게 되었을 때 여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보통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생리통약은 먹어 버리면 중독된다고, 그러니까 약먹지 말고 참는 게 가장 좋다고.

처음엔 나도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은 먹을수록 중독이 돼서 나중엔 약을 먹어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었으니까.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 생리통은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이다. 생리기간동안 매일 아픈 경우는 거의 없고 아파봤자 하루이틀이다. 또 생리통약은 곧 두통약이다. 두통약을 한 달에 한 번씩 몇알 먹는다고, 그게 매달 반복된다고 중독될 양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10대에 생리를 시작한 여성들이 설혹 매달 진통제를 1~2알씩 먹어서 중독이 되어 더 이상 진통효과가 없다 해도 그때는 여성들이 완경(完經, 폐경의 새로운 말)을 할 때쯤이 될 거라는. 그래서 나는 '용감하게' 매달 생리통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먹기 시작했다. 나는 생리를 처음 시작한 14살에는 생리통이 별반 심하지 않았는데 몇 년 후부터는 생리통이 굉장히 심할 때가 생겼다. 보통 생리를 시작한 첫날 그렇다. 너무 심할 때는 눈앞에 노레지고 걸어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럴 때 진통제를 먹으면 그래도 통증이 좀 줄어든다.

중학교 시절 생리통을 이틀 앓았고 참던 그 친구는 요즘에도 약을 안먹을까? 잘 모르겠다. 난 아픈 걸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생리통이 시작되면 바로 약을 먹곤 했지만, 친구들을 보면 눈앞에 노레질 정도가 아니면 보통 생리통을 참는 듯했다. 이제는 여성들이 생리통을 참지 말고 약을 먹었으면 좋겠다. 아픔을 참지 말고 아프지 않을 몸의 권리를 찾았을 좋겠다.

난 생리를 불편하고 거주장스런 일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화장실에서 어떤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나의 생리 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게 되었다. '아유, 생리 시작했네, 짜증나.'

'왜? 난 생리 시작하면 기분 좋던데.'

'뭐라고? 기분이 좋다고? 왜?'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반갑지. 해야될 생리를 안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 내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이 대화를 듣고 난 왜 그동안 생리를 나쁘게만 생각해 왔을까 돌이켜 보았다.

그리고 그 후로는 나도 생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해볼게 됐다.

내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로 매달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같이. 그리고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되니까.

물영

도자

● 내가 만난 변태들

1. 변태도 '그레이드' 가 있다. 정말 기분 나쁜 변태를 만난 적이 있었다. 친척동생과 함께 놀이터에 놀러갔다. 예가 아주 빨라서 개 꽃이다닌다고 장심이 없었다. 어느 순간 나이든 아저씨가 시소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아저씨가 한 일 되게 없네? 하고 무시했다. 예가 너무 빨라서 조금 지질 무렵, 스치가는 눈에 그 아저씨의 손이 중심부에 가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까진 그냥 그랬다. 근데 아저씨는 날 쳐다보며 웃으면서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구역질이 났다. 성폭력당한 느낌이 이런 거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카뻘 색이, 덜덜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못본 척 친척동생을 데리고 빨리 놀이터를 피했다. 다행히 만난 정말 기분나쁜 변태예이었다.

2. 방늦게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문창 개구멍을 통과할 무렵, 개구멍 문간 한구석 바위에서 손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주무르는 사람이 있었다. '뭘 저리 주물러거리지?' 하면서 그의 얼굴과 손목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순간 '아차!' 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물건을 담고 있었던 것을 착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난 혹시나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차마쳐가기 전까지 주욱 그의 행동을 주시했었다. 그도 끊임없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주시하는 나를 번히 쳐다보았다. 내 앞에 친구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난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고하세요' 하고 지나쳐왔다. 아- 공부에 지친 생기를 학내에서 단련하는 저 모습이란! 역시! 회원인의 부지런한 모습이란! 아하하하하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3. 집에서 열심히 홈페이지업을 하다가 배가 출출하여 수피로 향했다. 골목을 돌아서 큰길로 쫓 나가려는 순간 맞은편 좁은 골목에서, 전봇대 뒤에 숨어서 딸뻘아를 치는 분을 발견했다. 참으로 불쌍했다. 얼마나 불쌍했느냐면 혹시 홈리스가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도 계속 딸뻘아를 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프로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 저기 숨어서 딸뻘아치는 변태다!' 하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분, 상습적이었다. 요즘도 자주 만난다.

내가 만난 변태들은 항상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그것도 물건이라고 가지고 다니냐?' 라고 소리치라고 충고한다. 근데, 그런 말은 그냥 하기 싫다. 그냥 그분들 불쌍하기도 하고, 쫓아 작은 것도 괴인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인데, 그 사람 앞에 동전 하나 던져주면 어떻게하는 생각도 든다. 불쌍하다는 표시로 말이다. 그럴 정말 꼭팔릴 거 같지 않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과신데, 예들이 날 불쌍히 여기니까... 정 정 그러워서 먼전에서 동전던지기 힘들다면 멀리서 동전을 중심부에 맞추어 약팔을 오르게, 혹은 성감을 극대화해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무월월

통이

● 생리통=악마친구

한 때는 내 삶에 찾아온 악마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달에 한번 (간헐적인) 벌도 없었다.) 나에게 찾아와서는 폭식과 우울증, 피부 트러블을 조성해 놓고는 요통, 복통으로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껏 나를 괴롭혔던 생리통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방법들을 해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약 먹기, 불이는 스티커, 찜질요법, 운동 요법, 저압요법, 비터린 요법, 다리미 요법 등 아마 이 정도를 다룬 어떤 것에 쏟아 부었다면 그 분야에서 박사쯤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사실 그리고 보면 나는 지금 생리통 박사다 되었다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방법도 별 소용이 없었고, 한때는 생리통약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고통을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밤늦은 자율학습 시간까지 그 고통을 참기에는 정말 힘들었기에, 가끔 담임선생님께 어렵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일찍 집에 간 적도 몇 번, 남녀 공학의 남자 학이 걱정스럽게 내 안부를 물어볼 때 매달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 가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또한 체육시간이 되면 혼자 스탠드에 앉아, 배가 아파 힘든 와중에도 남학생들 보기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만 했다. 이라고 보니 세해 내 기도에 생리통 없애주기를 바라는 항목도 어김없이 들어가게 되었고, 생리가 다가올 무렵이면 그 때부터 나는 쉼없이 신장이 날카로워지고, 짜증을 내기 일쑤였다.

생리통과 함께 한 고교시절 힘든 시간들이 흘러가고 대학에 진학하고도 생리통은 없어지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면 생리통이 없어진다는 예에 호호한 이야기들을 믿으며 얻은 시간이 차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듯 생리통과 한달 한 달을 자른다 보니 신기한 것은 생리통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변해 간다는 것이다. 가증스럽지만 생리통을 하지 않으면 그 달은 조금 서운한 생각마저 들기도 한 것이다. 습관이란 것인가? 적응이 되어서 일까? 나이가 들어서 일까? 예씨 이유를 만들어 보려하고, 조금은 더 내 몸과 그 자연스러운 상황들에 대해 답답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까? 여자로서 겪게 되는 생리통에 대해 조금은 더 당당해졌다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가며,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가 되어버린 듯하게 그 고통을 즐기는(?) 정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더 이상 부끄러울 것 없는 내 몸의 변화 앞에서 나는 여자로서의 자부심과 새 생명의 잉태를 위한 내 몸의 이러한 변화들이 고귀하다고까지 느끼게 된 것이다. 단순한 아픔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신비로움을 느끼기까지 지난 10년 세월 함께 한 생리통이 새삼 고마워 질 때는 폐경을 맞은 어머니의 우울증을 볼 때이다. 생리통이, 생리가 여자에게 있어 얼마나 큰 의미인가...

지금과같은 고통과 함께 나를 여자로 존재하게 하는 생리통! 가능하다면 오랫동안 함께 하자...

세진이

● 변태 퇴치법에 관하여...

조금만 늦게 들어가도 여자들은 부모님의 걱정어린 잔소리 건네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마음으론 그 걱정을 이해할 수 있을것도 같다. 이 세상엔 너무도 많은 변태들이 득실거리고 있으니... 지금부터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태퇴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한다. 뽀- 모든 변태의습성을 이해할 수 있을만큼 나는 비정상적이 아니므로 100% 말 할 순 당근 없겠쥬-

먼저, 어린변태! 고등학교 때였다. 우리집에서 위로 올라가면 나오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자가이 하나가 학교장 생각을 않고 자꾸 내려가는 나를 따라오고 있다. 따라만 오던 녀석이 서서히 거리를 좁히고, 내 몸에 자기 몸을 붙이더니 얼굴을 가까이 대어온다. 급기야 신음소리까지 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 씨발, 재수없을라니깐?' 꼬마 녀석은 꼬랑지를 빼고는 도망을치고, 담부터 나만 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다. 그렇다 변태들은 상처받기 쉽다. 그래서 작은 상처라도 주면 된다... 그리고 순전무구한(?) 꼬맹이가 아닌가. 느긋하게 다 안다는 듯이 대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듯. '너 많이 팔았냐?'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큰 변태! 결론은 하나다. 살려줄 필요가 없다. 매장시키자! 대학교 때였다. 택시비가 없어 집에 전화를 하려고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간 나. #대 아저씨 하나가 다가온다. '이거봐, 친구들은 노래방에 갔는데 나만 파트너가 없어 못 들어가고 있어, 같이 놀자' '됐어요, 가보세요, 아저씨도 집에 말 있잖아요' '그래, 나도 말있지, 말 생각하면 어릴 수 있지. 그래도 같이 놀자' 급기야 그 큰 변태는 공중전화부스까지 따라 들어왔다. 나는 결국 112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때까지 '전화했어?' 라며 나를 찔보는 듯 쳐다보는 아저씨... 결국 그 날 그놈을 죽점심판으로 누르고 조서까지 쓰고 나서 집으로 왔다. 큰 변태는 변태에다가 집도 없고 거짓말도 잘하고(그놈은 파출소에서 내가 먼저 손짓을 했다고 하더라) 능글맞기까지 하다. 절대 상대하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자.

셋째, 절 나쁜 변태! 경험 많은 절 나쁜 변태들은 결코 우리에게 그저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 고등학교 때 버스에서 계속 나의 @@@@를 만지고 있는 아저씨... 하지 말라는 애절한 눈빛도 껴넣고 '아저씨!' 라는 항의도 무시하고 계속 대는 그 아저씨들... 이런 나는 차마 때내지 못하고 계속 당하기만 했다. 소극적인 항의는 오히려 변태들을 즐겁게 할 뿐! 이럴 땐 크게 소리를 지르자! '까-! 여기 변태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자기와 관계있는 일에 무관심할 순 없으니...

변태를 만나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잘난 녀미 변태일 리가 있을까) 오히려 능글맞게 대처하자. 학교 앞 팔방아들하고 소리치며 달려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걱정어린 눈빛의 '출지않으세요?'는 변태 하나를 살릴 수 있는 길... 변태들이 좋아하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일은 이제 그만! 정말 절 나쁜 변태를 만날 수도 있으니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팔리기 정도는 때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시

페니스 파시즘을 읽고

심민경 del0506@freedail.com

어디서부터 말문을 열어야 할지 모르겠다. 책을 통해 본 여성은 너무도 짓밟혀져 차마 손을 내밀기도 두려운 상황이었다.

박남철 시인의 욕사로 인해 난자된 한 여류시인. 그러나 문단은 침묵하고 있었고 급기야 박남철 시인을 지지하는 평론가까지 등장했다. 그 시가 문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바깥이 문학 잡지에까지 실리고 장비게시판의 독자들까지 모욕감을 느꼈음에도 그것을 한동안 그냥 지켜본 창비와 문인에게 우선 분노가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게 한 이 사회에 대해 큰 의문이 생긴다. 강준만은 책에서 대부분을 가지고 창비와 문화특권주의를 비판했으며 그것 또한 일리가 있지만 책의 주제가 페니스 파시즘인 만큼 간단히 짚어보자면 박남철이 그 시를 문학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이문열이 최근에 낸 중단편집 술단지과 잔을 끌어당기며에서 드러낸 여 국회의원에 대한 보복과 다를 것이 없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상실한 글이 문학이란 이름을 달면 괜찮은 것일까? 문학은 면죄부란 말인가?

이 책을 읽고 내가 얻게 된 것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내가 미처 몰랐던 어찌면 피해 여성들의 (억압을 통한 희생에 앞서는 어찌면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고(여기서 이득이란 여성차별이란 것에 대한 '비명' 과도 같은 권리주장에 대해 일부 남성들은 그들을 마녀로 싸잡는 대신 말없이 순순히 복종하는 타 여성에 대한 '그들의' 애정어린 보호를 예가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그러한 상황은 바로 제목에서 답을 알려주듯 페니스와 파시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사회에서 지행되는 남성우월주의는 여성들이 말하는 '자유'까지 빼앗고 그러한 행위는 집단에 의해 정당화되며 때로는 남성들 스스로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문제제기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실로 두려운 대상들의 이태를로기였다.

어떤 글에서 왜 여성들은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들의 계몽의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나라는 물음을 본적이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면 많은 답답함을 누르고 차분해져야겠지만 내 나름의 생각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내게 가장 특별한 한주를 설정하여 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게시판에서는 다양한 논쟁과 논쟁이던 것이 전개되

었는데 콘돔사약식이라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보겠다. 물론 장소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이것은 어찌보면 문제의 본질을 비껴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한 권리제시이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에 짚어보겠다.

우선 콘돔사약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사람이 있다. 두가지 경우다. 나는 이 행사의 타당성을 제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두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간략히 말하면 한 경우는 어디서 되바라지게 그런 말을 꺼내라는 것이었고 나머지 경우는 내가 어찌보면 콘돔은 상식이다. 대학생으로 이런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불쾌하다는 입장이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두 경우는 둘다 반대를 하는 것이지만 그 생각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이며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경우를 모두 충족시키라는 실현불가능한 주문을 받게 된다. 앞에서 왜 계몽대상으로만 생각하느냐는 불만은 비록 본인은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똑같이 본다하더라도(확실히 없지만) 사회속의 여성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들로부터의 정신적,물리적 폭력에 지르는 비명을 내가 널 언제때리느냐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것이며 그말만으로도 충분히 상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콘돔사용은 고등학교때나 때왔어야 할 성교육의 차원이지만 그것에 이토록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상반되는 같은 입장이라는 모순앞에선 여성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다.

책에 제시된 군가산점의 문제에서의 예비역들의 반응을 장소에 대한 이의제기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그들이 싸워야할 대상, 권리 요구를 해야할 대상은 국가 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에게 그 화살을 들렸다. 그들의 희생을 약자들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심리. 그로 인해 일어나는 여성과 장애인에의 불이익은 실로 엄청난 것인데 말이다. 마찬가지로 소음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권리주장은 옳은 것이었으나 그 대상은 행사주최측이 아닌 학교당국에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다시 내가 책을 통해 얻은점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여성이 사회에서 처한 현실은 실로 억압적이었다. 물론 나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 사회에서 정해진 틀의 보호속에서 성장하여서 실제로 부딪힌적은 없지만(물론 글을 통한 간접체험을 통해 극복할기 너무도 어려운데서 오는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을 수차례 느꼈다) '여자가 말아야' '여학생이 어디서' '여자는 이런걸 하면 좋지' '이런직업이

여자에게는 가장편해' 라는 말을 무수히 들어왔음은 당연하다. 나는 이것이 왜 당연해야 하는지에 분노한다. 이런 나의 주체성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말들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내야하는 것은 실로 괴로웠지만 그런말을 죄의식없이 하는 사람들 역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말을 하는 남성의 경우 장님 그들은 남성끼리 이해상을 살아야 하겠군요라는 안타까움(왜냐하면 여성은 동반자가 아닌 보호대상 내지는 지위가 낮은사람이라고 생각하므로)이고 여성의 경우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 왔다는 것에 대한 시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물론 예전보다는 그러하다. 그러나 아직 결코 완성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출판선이 다르다는 불만, 그것이 사실임을 망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성공신화를 끊임없이 부추긴다. 비록 달라도 (왜 달라야 하는가?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정한 경쟁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너도 계만큼 뼈빠지게 노력하면 성공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성공신화속의 여성들이 많다. 물론 그 여성들은 성공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요구는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일까?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BS노조부위원장 성추행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말한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건 결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나는 다시한번 절망감을 느낀다. 당시 자행된 조직이라는 이름으로서의 폭력, 파시즘적 성격의 언설들이 여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도 알수 있었다. 조직의 배신자라니, 자신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 곧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힐수 있으며 선물주는행치고 용서하라는 등의 말에서 나는 더 큰 폭력을 보았다. 어떻게 피해자를 그토록 수번씩 찢으며 태연할수 있다는 말인가.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종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가해자의 관점에서 성폭력은 규정된다는 보수적인 법논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볼수 있듯이 동원되는 조직의 논리와 남성우월주의로 이루어진 현실의 무수한 집단들이 바로 여성을 동등한 위치에 세울 수 없게끔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는 것일까?

스스로를 지켜야함을 의무로 주입하면서 그것을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의 결정권은 사회나 남성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권리는 아무런 동의 없이 사회로 남성에게로 양도되어 있다.

사회계약론에서 처럼 자발적인 동의도 아니었고 요청도 아니었다. History는 말 그대로 남성의 역사라는 전여옥의 말처럼 그 역사에서 주체가 되지 못한 채이니 될 수 없었고 그 주변을 장식한 여성은 늘 지켜져야 했으며 행실이 맘에 들지 않아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여성의 삶은 결코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지켜줄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다. 혹 지켜줄수 없다면 그래도 할수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은 성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대한 사회의 인식으로부터 얻어낸 것이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조용히 사는게 어쨌든 편할것이다라는 말처럼 들린다. 강간이 성교로도 생각되어 질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하며 그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놓고 어떻게 함께 할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남기며 책을 덮는다. 남성들은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느냐고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바깥이 지행되는 남성의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을 적시해야 한다. 더불어 별로 불편한 것 없는데라고 생각하며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를 오마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사회에서 외위준 전통제 내지 마취제의 힘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남성보다 우위에 서자는 것이아님을 그저 남성과 함께 같은 위치에서 살고자 하는 당연한 요구이라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며 보임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역시 세계에 의한 자기부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장현경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였다.

나이와 이력에 걸맞지 않게 푹푹 뒹구는 신세대같은 외모와 사고 방식이 내 마음에 꽂혀 왔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어떠한 면들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고 페미니스트로서의 삶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를 만나 보기 위해 그리고 그의 행간을 훑쳐보기 위해 서점으로 달려가 도발적인 동시에 경건

함을 주는 짙은 빨간색으로 싸여진 책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약간은 들뜬 감정으로 그것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선생이 젊은 여성들에게 남기고자 한 메시지

이 책은 제목처럼 진정한 여성이 되길 바라는, 이제 갓 여성의 삶이란 무엇인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리고 여성이라는 억압된 계층의 옷을 입고서 불평등하게 구조화된 세상을 어떻게 싸워 나가고 투쟁하며 그라나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를 인생의 선택으로서 스승으로서의 모습과 조언 그리고 예견 어린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 저자는 '현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현이라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제외하고 김을 현과 가을 경이라는 의미로서 여성들을 있는 그대로 반추하는 거울이 되고자 하는 태도에서도 그의 깊은 뜻이 잘 드러난다.

선생에 대한 나의 이중적 반응-열렬한 호응과 거부감

그의 글들은 이윽고 나를 혼돈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 안에 품고 있는 격렬한 감정들, 사건들이 나를 미치도록 웃게 때로는 울게 만들었다. 그러나 너무나 진보적이고 개인 생각들에 너무 적용하기 힘들었고 거부감이 깊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나도 열린 마음으로 그러한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가슴 저 삼연으로부터 밀려 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내 자신이 얼마나 불편일지라도 제도권 교육에 단련되어 왔으며 얼마나 체제 유지에 위한 암묵적인 사고들을 내면화 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털어놓는 경험들은 아주 솔직했고 그것이 개인적인 회생을 크게 감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강렬한 느낌과 주장들이 외려 내게는 부담스럽고 페미니스트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 페미니스트이면서 편안한 내지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물론 그의 삶처럼 자유 분방하며 정열적이게 사는 것이 모든 페미니스트들의 생활과는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페미니스트들도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다양하게 계층화 내지는 계층화되어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삶은 너무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이어서 적어도 나같은 작은 사람에게는 대려 짐스럽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생각되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사고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자각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것에 다가가고 싶다는 아주 속편하고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을 했다.

이 땅에서 억압된 여성으로,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주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와 같은 패를 나는 노력과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명할 이치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하루하루 의식 있는 삶을 위해 부지불식간에 외·내적으로 받아 왔던 자신의 상처·본인, 개인의 탓이라고 여겨 왔던 이름들이 실은 거대하고 파괴적인 자본주의라는 그리고 가부장제의 장치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곁들여 놓았다.

선생의 시각

이 책을 읽으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것들이 실은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억압적인 상황으로 작용해 왔는지를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심지어 혁명가임을 자처하는 진보적인 남성들 또한 여성들에게는 불건전한 그리고 남성 우월적인 것들을 들이대며 내가 낳고 기어 보았자 여자임에 불과해 내지 너를 유린하므로 나와 진정한 남성다움(마초다움)을 과시할거야 로 드러난다. 이 순간 나는 너무나 절망도 절망하였다. (사족이지만 선생은 그래도 남성 일반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멈추지 않는다.) 얼마 전에 모 영화 잡지에 기고되는 칼럼에서,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진보적이라고 불리어지는 김도씨가 내뱉은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타당성없는 작개심을 바라보며, 세상의 절반인 여성을 해방함으로써 비로써 온 인류의 자유를 쟁취 한다 라는 이상(은 아직도 험난하다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장현경 교수가 말한 발칙한 여신 친구들이 많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가 어렵게 지면을 통해 이야기 하는 진정한 이유인 듯 하다. 조금은 다 큰 아이이지만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같은 희생은 못하다라도 그와 같은 치열한 마음가짐과 실천이 이 세상을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우선 내 안에 뿌리 박힌 독은 체제의 썩거기를 제거해야겠다는 강렬한 의무감도 느껴 본다.

마지막으로 비록 선생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여신들을 위한 심계명은 두고두고 되새김질 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첫째, 여신은 자신을 믿고 사랑한다.

둘째, 여신은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일을 한다.

셋째, 여신은 기, 끼, 향이 넘친다.

넷째, 여신은 한과 삶을 품다.

다섯째, 여신은 금기를 뚫다.

여섯째, 여신은 산나를 논다.

일곱, 여신은 제맛대로 산다.

여덟, 여신은 과감하게 살려 내고 정의롭게 살릴한다.

아홉, 여신은 기도하고 명상한다.

열번째, 여신은 자구, 그리고 우주와 안배한다.

여하튼 파괴와 허무의 철학을 생산해 왔던 남성이라는性を 지닌 신의 것이 아닌 여신의 계층은 자유와 생명으로 충만하다. 내 자신 욕심이 많아서 이 책을 계기로 많은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동안 스스로를 막아 내리다 못해 소외시킨 내 자신에게 진실으로 미안하다는 용서를 구하며 이만 졸필을 멈춘다.

안혜경, 여성으로 노래하라!

이석윤이 serena22@freechal.com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 노래는 대표적인 투쟁가라고 할 수 있다. 변종의레라는 것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이고, 5·18때 광주에서 처음 불려졌다고 한다. 이렇게 '투쟁'이라는 것이 있는 곳에는 노래가 있다. 예전에는 애국가도 부르고 군가도 불렀다고 한다.

그러면 만약 여성들이 모여서 여성의레라는 것을 하면 무슨 노래를 부를까? 노래라는 것은 노래의 멜로디에서 오는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과 노래의 가사에서 오는 내용이다. 그런만큼 여성들을 위한 노래는 그동안 너무나 부족했다. 늘 듣고 부수는 남성들의 노래로 우리는 우리의 멜로디와 가사를 잃어버렸다. 그저 흥얼거리기만 해도 기분 좋은 노래, 그런 노래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사는 여성들에게 안혜경씨는 일찍부터 여성들의 공간에서 사람만 아왔던 페미니스트 가수이다. 지금은 산에 페미니스트 가수나 그룹들이 많이 생겨나서 안혜경씨는 이미 나이든 아줌마가 되어 버렸지만 그녀는 여성으로 노래라는 것으로, 음악이라는 것으로 여성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안혜경 씨의 노래와 음악은 여성주의자들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 늘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다.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메시지를 감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희망이었다.

오래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녀가 내뿜는 메시지는 92년 1집에 비해 더 많은 힘을 발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녀가 7년만에 내놓은 3집은 <전쟁, 여성, 자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아프간 전쟁을 바라보며 그녀가 내놓은 음반이라... 전쟁, 여성, 자매라... 과연 자매애가 있는가라는 여성주의의 철학적 담론을 벗어나 그녀가 이야기하는 자매애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상적 폭력이 극대화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군 '성노예'가 생겨나고 휴전 상태에서 '기지촌 여성'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벗어난 보편적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은 여성들을 극대화된 폭력 속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안혜경씨가 노래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다. 아프간 여성들의 이름과 굶주림 속에서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전쟁만큼 남성들의 영역도 없으며, 전쟁만큼 여성을 극한의 상황 속으로 몰고가는 것도 없다. 아프간 여성들이 차도르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장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프간 여성들이 전쟁에 의한 폭력에 신음하고 있다면 전세계 여성들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일상적 폭력의 위협속에 살고 있다.

안혜경 씨의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성은 이러한 폭력에 대한 메시지이다. 아프간 여성들은 차도르로 온 몸을 감싸고 있지만 그들은 전쟁, 폭력, 굶주림, 성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 차도르를 벗어 던지고, 여성으로 노래하라!

서울여성영화제가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다

페미니스트인 내가 영화를 좋아하게 이후로 '서울여성영화제'는 짧은 순례여행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지난해의 그 행복했던,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기억을 안고 다시 찾게 된 나의 두 번째 순례여행. 게다가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배신당하고 있다. 준비할 걸 준비하지 못한 여행자의 실수 탓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1회 여성영화제. 무엇보다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첫 영화제 되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마치 전쟁같은〉 인도의 신아제한 정책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인도는 마치 전쟁같은 신아제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 잔혹함이란, 각 행정단위별로 강제적으로 xkx를 사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관료들이 주민들에게 "돈을 주겠으니 하라"고 거짓 약속을 하고 여성들에게 수술을 받게 한다. 또 난자들을 데려가서 거세를 시키기도 한다. xkx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부'를 설치하는 이 수술은 마취도 없이 단 몇 초만에 무성하게 끝난다. 이 의사는 수술을 하면서 자신이 처음 수술할 땐 15분이 걸렸으나 지금은 15초 안에도 가능하다고 카메라를 보며 자랑하며, 정부의 수술건수 제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 위로 오버랩되는 것은 입을 틀어막힌 채 수술받는 여성들의 끔찍하고 고통스런 표정. 수술을 하면서 죽는 여지도 많고 수술 후에 출혈이 심한 사람도 많지만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면 무조건 '참으라'고 한다.

다큐멘터리의 한계에서는 한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몸을 종이에 본 떠 그려놓고 서도의 실과를, 그리고 여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인도민속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인도의 관습상,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이고 기쁨이며, 가난한 살림에 노동력이 늘어나는 의미를 가진다. 아들을 못 낳거나, 불임인 여성들은 천축들 내에서 손가락질을 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강제하는 불임수술은 인도여성들에게 이중의 억압으로 작용한다. 저속같은 삶, 그게 내가 다시 확인하게 된 인도의 참모습이었다.'



끔찍하리만치 고통스러웠던 이 영화 외에도 세계 경제에 산업의 국경을 초월한 때가 나뉘는 담은 〈감각원격조정장치〉, 뉴욕의 인도계 페즈비안이 가족과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을 유쾌하게 담은 〈인도식 팝콘〉, 모성과 자유로운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뉴욕의 보헤미안인의 행복한 발을 담은 〈마가리타 해파리〉, 에디 디프랑코의 음악과 실보다 감동과 감에서 가장 부로 일했던 지미아중마의 절절한 입담과 재기발랄했던 영상이 돋보였던 〈나는 내가 지난 세월 한 일을 모르고 있다〉, 알아듣기 관소리들을 때면 언제나 〈세일러문〉의 주제를 부르며 위안을 찾는 마음 어린 백조의 삶을 담은 〈그해 겨울도 11호는 달에 갔을 까〉, 아마 이 영화제 단편경선에서 관객상을 받았던 자,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었다. 바바라 해미의 영화만큼 부가는 영화는 없었지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유쾌한 영화들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언니의 페즈비안트 역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보다 내가 영화를 보면서 불편했던 것은 영화제 운영상의 문제들이었다. 물론 중소규모의 영화제다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거다. 먼저, 3회 때에 비해서 인망이 있었다. 특히 지역관람객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가 없었다. 물론 서울에 페미니스트가 제일 많고, 여성영화제를 서울에서 한다고 해서 우루루 서울로 몰려갈 지방페미니스트 역시 극소수이긴 하다. 전주영화제처럼 숙소를 제공하라는 기대는 일지감지해도 없는 거라 생각하고 있다. 최초의 배려관객에서 지방관람객들에게 이런 불편을 겪어선 안 되는 것이었다고 본다. 인터넷배와 전화배로 장구가 일원화되어 한 건당 40원에서 1000원의 수수료, 그리고 입금시의 수수료까지 합하면 감당 못할 수준이었다. 돈이고 시간이고 없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것도 지방사람들은 불가능한 있는데, 영화가 상영되는 동숭아트홀에서, 그것도 예약할 영화의 상영일 하루 전에만 가능했다. 게다가 배정상황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헛걸음하는 사람도 꽤나 있었다고 한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당해에는 제대로 가서 고생하지 말자 다짐했으나, 어찌 필자는 나도 모른다. 왜 영화가 너무 조으니까.

필리 dicesy@yeshall.com



문화잡지
보일러
6월 3일 창간